

96.
5.13
□ 인터뷰 / 조셉 렌줄리 코네티컷주립대 영재교육연구소장

“IQ잣대 영재판별 옛말...다양한 능력 중시”

코네티컷 / 오룡 기자

“영재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지능지수만으로 영재를 판별했으나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타고난 능력을 중시한다. 그런만큼 영재교육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영재교육 전문가인 조셉 렌줄리(60·사진) 박사는 영재교육에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코네티컷대와 스탠퍼드대

예일대 뉴욕시립대 등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세운 영재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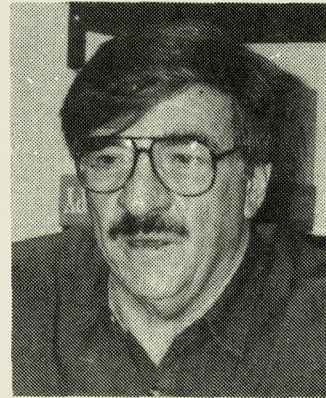
-영재란 어떤 아이인가.

=전에는 각종 지능지수 상위 1~3%를 영재로 보았으나, 점차 5~10%로 개념이 확대됐다. 지능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능력을 가진 사람도 영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영재를 'the gifted' 대신 'the talented'라는 말로 쓰는 경향도 이런 맥락에서다. 최근에는 심

지어 영재를 지능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학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영재교육 현황은?

=워낙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대체로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특별활동이나 특별반 구성, 휴일을 이용한 이동식 수업, 순회교사가 일정 지역의 영재를 모아 수업하는 방식 등이 있다. 중등학교에도 특별반 편성 등이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대학 초급과정을 미리 배우는 고급과정(AP)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교육개혁 일환으로 조기입학과 속진제를 도입했다. 미국 초등교육에서도 속진제가 실시되나.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속진제

를 쓰는 학교가 드물다. 속진을 하려면 학생 본인과 부모, 학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사회 적응문제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퇴조했다. 속진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나 가능하며, 속진보다는 조기입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영재교육 방법은?

=수업기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창의성을 길러주고 탐구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능력을 계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의 영재교육 전망은?

=개인의 차이와 능력에 따른 교육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본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 원칙에 걸맞은 것 아닌가. 최근의 영재교육 연구도 이런 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